

# 後期桐城派의 ‘三江’ 論爭

— 吳汝綸, 張裕釗를 중심으로\*

백광준\*\*

## <目 次>

1. 서론
2. 논쟁의 내용과 그 지형
3. 지리적 형세의 고찰
4. 논쟁이 놓인 자리
5. 논쟁 그 이후

## 1. 서론

吳汝綸(1840~1903)과 張裕釗(1823~1894)는 曾國藩(1811~1872)의 막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며, 흔히 曾門四弟子, 곧 ‘중국번 문화의 네 명의 주요 제자’로 분류된다.<sup>1)</sup> 오여륜은 애초 동성 출신으로서 동성 학문을 계승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장유조 역시도 동성 적자로서 손색이 없었다.<sup>2)</sup> 이런 공통의 지향이 있었기에, 둘은 평소 글쓰기, 문론 등에 관해 함께 질차탁마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볼 때, 그들의 문집에서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 두 사람 간에 전개된 한 논쟁이었다. 둘은 1887년에 하나의 사안을 둘러싸고

\*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1) 그 외의 두 사람은 薛福成, 黎庶昌으로, 오여륜과 장유조가 문인에 가깝다면 상대적으로 이들 두 사람은 주로 정치적 활동에 치우쳤다.

2) 朱寶瑜, 『音注張濂亭文揭要』: “先生崇尚惜抱, 與吳摯父先生, 并爲桐城嫡派.”(『張裕釗詩文集』, 580쪽)

비교적 긴 논쟁을 이어갔다. 동성의 글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공히 동성에 대한 적통을 내세우고 있던 두 사람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또 흥미를 끄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흥미로운 점은, 그 논쟁이 문학 관련한 쟁점이 아니라 『尙書』 「禹貢」 편에 등장하는 ‘三江’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논쟁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강’ 논쟁과 관련하여 경전에 실린 한 단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嶓冢山으로부터 漾水를 인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漢水를 이루고 다시 동쪽으로 나가 滄浪之水를 이루었다. 三澨水를 지나서 大別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江水로 들어갔고 동쪽으로는 물이 괴어 彭蠡湖를 이루었고 동쪽에 北江이 있어 바다로 들어갔다. 岷山에서 강수를 인도하여 동쪽으로는 따로 沱水를 이루었고 또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澧水에 이르렀으며 아홉 가닥의 강이 있는 곳을 지나 동릉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 비껴 흘러 북쪽으로 물이 권 팽려호로 합치었고 동쪽에 中江이 있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sup>3)</sup>

여기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이것이다. 왜 상기의 인용문에 북강, 중강만 보일 뿐 남강은 등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sup>4)</sup> 이로 인해 ‘남강은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 ‘우회하여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북강, 중강만 있는 것인가?’, 또한 ‘만약 삼강이라면 나머지 남강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등등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다.<sup>5)</sup> 더불어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안이 사실 이들의 개별적 관심사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대대로 주목을 받으며 광범위하

3) 『尙書』 「夏書·禹貢」: “嶓冢導漾, 東流爲漢. 又東爲滄浪之水, 過三澨, 至于大別, 南入于江, 東匯澤爲彭蠡, 東爲北江, 入于海. 岷山導江, 東別爲沱, 又東至于澧, 過九江, 至于東陵. 東池北, 會于匯. 東爲中江, 入于海.”

4) 참고로 동일 경전의 다른 곳에는 ‘삼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를 북강, 중강, 남강의 삼강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이는 장강 하류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삼강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謝壽昌等編輯, 『中國古今地名大辭典』, 27-28쪽 참고)

5) 孔祥軍, 「試論清代學者『禹貢』研究之總成績」, 『清史研究』, 100-101쪽 참고.

게 탐구되어 온 주제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sup>6)</sup>

이 글에서는 삼강 논쟁이 가진 상기의 학술사적 의의를 염두에 두면서, 이 두 사람 간에 전개된 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들이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방법론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논쟁이 가지는 의의를 전체 학술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우선 논쟁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 2. 논쟁의 내용과 그 지형

논쟁의 시작은 장유조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1887년 「禹貢三江考」라는 일종의 학술논문 한 편을 완성한다. 글의 제목에서 보듯, 「우공」 편의 「三江」에 대한 고찰에 주안점을 둔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이후 오여륜과의 지속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 글에서 장유조는 “북강, 중강이 있으면 남강이 있는 것은 『우공』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그 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sup>7)</sup>이라 역설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삼강 논쟁이 태동된 배경을 참고하면, 그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sup>8)</sup> 이 인용문에 이어서 장유조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을 단도직입적으로 꺼내놓는다.

남강은 별도의 강이며, 장강이 이룬 강이 아닙니다. 郭璞이 말한 절강을 제외하면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절강이 남강으로 칭해지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바이며, 한인들이 거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하고 뒤섞여서 끝내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만, 예외 없이 남강

6) 謝壽昌 등은 고래의 삼강론 가운데 『상서』 「우공」의 '삼강'과 관련된 해석으로 크게 대략 8가지 지를 꼽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삼강론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국어』의 '삼강'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상서』 「우공」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분류하고 있다.(謝壽昌 等 編輯, 『中國古今地名大辭典』, 27-28쪽 참고)

7) 張裕釗, 「禹貢三江考」: “夫有北江, 中江, 則必有南江者, 此『禹貢』所未言, 而可因其言以求之者也.”(『張裕釗詩文集』, 209쪽)

8) 이례적인 견해로 淸人 楊守敬은 중강, 북강만 있고 남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二江論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孔祥軍, 「試論淸代學者『禹貢』研究之總成績」, 『淸史研究』, 109쪽)

은 장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가려 그것이 별도의 강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sup>9)</sup>

그러니까 남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장강과는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강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반복하고 뒤섞여”있다는 비판은 실상 반고의 『漢書』 「地理志」를 겨냥한 것이다.

나는 다만 반고 「지리지」의 남강과 이른바 “分江水”와는 그 실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반고의 취지를 헤아리면, 대체로 중강과 남강은 모두 장강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강은 장강이 이룬 것이지만, 남강은 독자적으로 강을 이룬 것이지 장강이 이룬 것이 아님을 모른 것입니다.<sup>10)</sup>

그는 이 점을 다른 글에서도 재차 피력하였다.<sup>11)</sup> 이렇게 장유조가 반고의 해석을 문제 삼자, 오여륜은 여러 반대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고는 산천을 규명하여, 「우공」, 「周官」을 엮었는데,立言에 지극히 근엄하고 신중하였다”<sup>12)</sup>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장유조는 “선생께서는 비록 반고의 왜곡된 주장을 확신하지만, 내심 그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것”<sup>13)</sup>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요컨대 장유조는 반고의 「지리지」에 실린 「우공」 관련 내용에 대해 “제가와 특

- 
- 9) 張裕釗, 「禹貢三江考」: “南江者, 自爲一江, 而非江爲之者也. 舍景純所謂浙江, 無以處之矣. ……浙江之稱南江, 其自古所傳, 而漢人猶及聞之者歟. 展轉膠轕, 而卒疑莫能明者, 蔽於必以南江爲江所分, 而不知其自爲一江也.”(『張裕釗詩文集』, 209쪽)
- 10) 張裕釗, 「禹貢三江考」: “吾獨以班氏『志』之南江, 與所謂分江水者, 爲非其實耳. 考班氏之意, 蓋以中江與南江, 皆江之所爲也. 不知中江, 江爲之者, 南江則自爲一江, 而非江爲之者.”(『張裕釗詩文集』, 208쪽)
- 11)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更取『禹貢』之文, ……虛志而讀之, 將以班氏之以南江爲江所分者之合於經乎? 抑將以南江自爲一江者之合於經乎? 且班氏之說, 其失尤未可以一二數也. 彼所謂分江水, 至餘姚入海者, 誠卽南江也.”(『張裕釗詩文集』, 250쪽)
- 12) 吳汝綸, 「答張廉卿書」: “班氏推表山川, 以綴『禹貢』·『周官』, 立言至爲矜慎矣.”(『吳汝綸全集』卷一卷1, 62쪽)
- 13)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足下雖篤信班氏曲爲之辭, 而固亦心知其不可通乎?”(『張裕釗詩文集』, 249쪽)

히 차이가 크다”<sup>14)</sup>고 그 괴리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중 특히 「지리지」의 ‘분강수’ 주장이 문제가 크다고 여겼으며, 여기서 나아가 남강이 별도의 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분강수’라는 논의에서 서로 치열한 의견 대립이 벌어진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장유조의 논의의 출발점은 광박의 이론이었다. 광박은 岷江, 松江, 浙江을 삼강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장유조는 이 대목을 가져와서 삼강 이해의 바탕으로 삼았다.<sup>15)</sup>

나는 또한 반고가 말한바 ‘分江水, 至餘姚入海’라고 한 것이 『水經·沔水篇』의 ‘동으로 석성에 이르러 돌로 나뉜다’와 정현의 ‘東迤’ 해설과 대체로 서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說文』에서 이른바 ‘강수가 회계 산음에 이르러 절강이 된다’는 것이 또한 매우 유사하여, 그것이 浙江이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sup>16)</sup>

장유조는 ‘分江水, 至餘姚入海’, 곧 ‘장강에서 나뉘어 여요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든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대 학자들의 논의를 참조하며 ‘분강수’의 주장이 실은 절강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론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반고의 ‘분강수’ 주장은 장강에서 남강이 갈라져 나왔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박의 논의에 입각하여, 절강을 남강이라고 여기고, 다시 그 남강이 장강과는 별개라고 말하려면, 이론 지형상으로 볼 때, ‘분강수’ 외의 다른 근거들에 기대었어야 하는 것이다. 오류론도 바로 그 점을 이상하다고 여겼다.

14) 張裕釗, 「策蓮池書院諸生」: “(반고의) 「禹貢」 논의는 제가와 특히 차이가 크다(說「禹貢」與諸家尤多舛迕).”

15) 張裕釗, 「禹貢三江考」: “그래서 나는 고염무의 북강, 중강, 남강을 취하고 민강, 송강, 절강을 삼강으로 여긴 광박의 견해로 보조하는 것이 실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吾故有取於顧寧人氏以北江, 中江, 南江, 傳於郭景純之以岷江, 松江, 浙江爲三江者, 爲得其實也.)”(『張裕釗詩文集』, 207쪽)

16) 張裕釗, 「禹貢三江考」: “余又觀班氏所謂‘分江水, 至餘姚入海者’, 與『水經·沔水篇』之‘東至石城爲二’, 及鄭康成之說‘東迤’略同. 而『說文』所謂‘江水至會稽山陰爲浙江者’, 其說亦頗相類, 而益明著其爲浙江.”(『張裕釗詩文集』, 209쪽)

선생이 이미 『설문』의 ‘江水至會稽山陰爲浙江’의 논의를 취하고 반고의 「지리지」, 『수경』과 정현의 ‘東迤’설에 부합한다고 여기면서도 오히려 장강은 절강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특이하게 남강을 별도의 강으로 만들었습니다.<sup>17)</sup>

그리고 다시 이렇게도 물어보았다.

선생께서는 분명 漢水가 북강이고 북강은 장강과 통한다고 여기면서, 남강은 어찌하여 장강과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만드시 장강은 절강과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sup>18)</sup>

이와 더불어, 앞서 장유조의 논의에 보면, 반고 외에 정현, 허신 등 역시 등장하고 있다. 그 인용문에서 반고의 ‘분강수’에 대해 정현, 허신 등도 자신들의 관점을 개진하고 있는데,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은 장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남강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sup>19)</sup> 그래서 오여륜은 그러한 전통적 해석에 입각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저 장강이 일단 절강으로 통하면, 광박의 절강은 분명 반고 「지리지」의 남강이니, 반고, 정현의 설은 바뀔 수 없으며, 石城에서 장강이 나뉘는 의심할 것이 없으며, 오현의 남강은 장강에서 나뉘어 석성부터 여요까지의 갈래라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sup>20)</sup>

이렇게 보면, 장유조의 주장이 묘연하게 느껴진다. 기존의 해석과 전혀 다르게, 반고의 ‘분강수’를 가져오고 또한 정현, 허신 등을 끌어온 다음, 이를 통해 남강은

17) 吳汝綸, 「答張廉卿書」: “頗怪執事既取說文‘江水至會稽山陰爲浙江’, 以爲有合于班志·『水經』及康成‘東迤’之說, 而猶以爲江不通于浙, 而殊異南江, 使自爲一江也.”(『吳汝綸全集』卷一, 60쪽)

18) 吳汝綸, 「再復張廉卿論三江書」: “執事固以漢爲北江矣, 北江通江, 南江何爲不可通江, 而必謂江不通浙者爲?”(『吳汝綸全集』卷一, 66쪽)

19) 孔祥軍, 「試論清代學者『禹貢』研究之總成績」, 『清史研究』, 108쪽 참고

20) 吳汝綸, 「再復張廉卿論三江書」: “夫江一通浙, 則景純之浙江, 固卽班志之南江, 班鄭之說無可易, 石城分江水無可疑, 而吳縣之南江爲分江水自石城至餘姚之道, 無可置辨也.”(『吳汝綸全集』卷一, 66쪽)

절강이 분명하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대체 어떤 이해 속에서 이러한 기존 이론의 해석상의 충돌을 초래한 것일까?

편의상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실은 장유조는 “반고는 석성에서 강물이 나뉘어 ‘至餘姚入海’라고 말하였으나 남강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sup>21)</sup>라며 반고의 기존 언급이 남강을 지칭했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추론하였다.

확박은 분명 송강을 「우공」의 중강으로 여겼다. ……반고의 「지리지」의 중강은 「우공」의 중강으로 하나일 뿐이다.<sup>22)</sup>

경전의 ‘導江’에서 ‘東爲中江’이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남강이 별도의 강임을 쉬이 알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종합하자면 송강이 중강이고 이는 반고 「지리지」, 「우공」의 중강인 바, 경전에서 ‘東爲中江’이라고 했으니 남강은 장강 쪽에 해당할 수 없는 별도의 강이 분명하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이라고 여겨져 온 한대 제가들의 설명 또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말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렇기에 “선생께서는 또 정현의 설에 의거하여 ‘東進’한 것이 남강이고 「우공」에서 이미 언급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sup>24)</sup>, “東進者爲南江”의 경우, 선생께서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제 마음으로는 가장 불만스러운 것입니다.”<sup>25)</sup>라며 비판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장유조가 이렇듯 제가의 이론에 비판을 개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전과 관련된

21) 張裕釗 著, 「禹貢三江考」: “班氏於石城之分江水雲‘至餘姚入海’, 而未以爲南江”(『張裕釗詩文集』, 208쪽)

22) 張裕釗 著, 「禹貢三江考」: “景純固以爲松江爲「禹貢」之中江矣. ……班氏「志」之中江, 「禹貢」之中江, 一而已.”(『張裕釗詩文集』, 207-208쪽)

23) 張裕釗 著, 「答吳擘父論三江書」: “經於導江曰: ‘東爲中江’. 此南江之別爲一江, 居然可知者也.”(『張裕釗詩文集』, 249쪽)

24)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足下又據鄭康成之說, 謂東進者爲南江, 「禹貢」既言之矣. 蒙又非之.”(『張裕釗詩文集』, 249쪽)

25) 張裕釗, 張裕釗書札 윤달 초판일: “至東進者爲南江’, 閣下以爲不易, 適乃鄙心之所甚不安者.”(『張裕釗詩文集』, 454쪽)

해석상 분명하게 남강이 장강의 지류라는 사실이 언급, 또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강, 중강이 공히 장강의 갈래이고 세력이 비등한데도, 오히려 그 한 가지만 거론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sup>26)</sup>

이러한 논쟁이 가지는 사상사적 의의와 관련한 궁금증을 덜기 위해 덧붙이자면, 최근 연구에 비춰볼 때, 사실상 삼강 논의는 '오해의 결정판'으로 운위된다. 곧 「우공」에서는 북강, 중강과 삼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는데, 『한서』 「지리지」에서 「우공」의 북강, 중강을 삼강의 두 강이라고 확정하자, 이에 따라 '분강수'로부터 나머지 강을 확정짓기 위한 분분한 해설이 잇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sup>27)</sup>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남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점을 지적한 장유조의 문제제기는 바로 정곡을 찌르고 있는 셈이다. 비록 보다 큰 틀에서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 전체를 전복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과감히 문제점을 들춰내어 새로운 발상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의미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3. 지리적 형세의 고찰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 또는 비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학리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병행하여 교감, 훈고, 수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 역시 함께 진행하였다. 그들 논쟁의 학술적 깊이와 넓이를 일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제시해본다.

26) 張裕釗 著, 「答吳擘父論三江書」: “若夫南江, 中江, 同爲江之所分, 勢均力敵, 乃僅舉其一, 而其一顧置而不言邪, 則其義果何居邪?”(『張裕釗詩文集』, 249쪽)

27) 楊向奎, 「讀程瑤田的『禹貢三江考』」, 『中國歷史地理論叢』 No.4, 73-74쪽.



남강은 경전에서 말한 바 없으나, 장강에 북강이 있고 중강이 있으니 남강이 있음을 알겠고, 삼강이 모두 강의 이름을 가졌으니 남강이 별도의 강이 아님을 알겠으며, 이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sup>28)</sup>

오여론은 남강이 별도의 강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명칭에 주목하였다. 이는 어떤 맥락일까?

남강이 장강에서 갈라진 것임은 분명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북쪽의 강을 '河'라 통칭하고 남쪽의 강을 '江'이라 통칭하는데, 다만 후세에는 전용하고 통용하여 부르는 것일 따름입니다. 애초에 강, 하는 각기 고유명사로 하가 아니면 하라 명명하지 않았고 강이 아니면 강이라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남강이 강에서 나뉜 것이 아니면 결코 강이라 명명하지 않습니다. 강이 두 강에 그친다면 단지 두 강이라 부르지, 결코 삼강이라 명명하지 않습니다. 북강, 중강은 모두 장강에서 갈라진 것이고, 남강만 오히려 그 주위의 한 물길 중 장강과 통하지 않는 것을 가져와 짝을 이루고 억지로 강이라 명명하며 삼강의 수를 채운 것인데, 신묘한 우공이 산천의 명칭을 주관할 때 아마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강은 경전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장강에 북강, 중강이 있으니 남강이 있음을 알겠고, 삼강이라고 강으로 통칭하였으니 남강이 별도의 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sup>29)</sup>

고래의 명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훈고의 방식<sup>30)</sup>을 동원하여 장유조의 견해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28) 吳汝綸, 『答張廉卿書』: “南江經所未言, 以江之有北有中而知有南, 以三江之并得江名, 而知南江非別爲一水, 此決無以相易者.”(『吳汝綸全集』卷一, 61쪽)

29) 吳汝綸, 『答張廉卿書』: “南江爲江所分, 固無可疑者. 凡北水通目爲河, 南水通目爲江, 特後世轉移通借而號之者耳. 其初則江河各爲專目, 非河不名爲河, 非江不名爲江. 南江非江所分, 決不名江. 江止二瀆, 但可謂之二江, 決不名爲三江. 若北江, 中江皆江所岐分, 獨南江乃取其旁一水首尾不與江通者配之而強名爲江, 而足三江之數: 神禹主名山川, 殆不若是. 南江經所未言, 以江之有北有中而知有南, 以三江之并得江名, 而知南江非別爲一水, 此決無以相易者.”(『吳汝綸全集』卷一, 61쪽)

30) 『說文解字』의 설명은 江, 河가 애초 고유명사였으며, 북방 기반인 『詩經』에는 江 관련 명칭이 겨우 5편에서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여러 언어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언어의 기원을 분석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최영에 지음, 『漢字學講義』, 87쪽)

이외에도 구두의 이해와 결부시켜 경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 경문의 표현을 분석하여 각각의 용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추론하려는 시도 등 세밀한 텍스트 분석의 방법들도 동원하였다. 글의 語彙, 措辭, 句讀, 그리고 제가의 경설 등 이론적, 수사적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공」의 導山, 導水에서 ‘至於某’, ‘會於某’, ‘過某’, ‘爲某’라고 이른 것은 모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헛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강이 장강에서 갈라진 것이라면 사실대로 ‘東爲南江’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예들려 ‘東迤’라고 하여, 뜬금없는 은미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후세에 의심을 남겼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sup>31)</sup>

장유조는 「우공」의 경문을 살펴서 표현의 차이로부터 결과적으로 별도의 강임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경학, 교감, 훈고, 수사 등 다각도로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우리가 이상의 논증을 텍스트 내재적 논증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 외재적 방식 역시 동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리적 형세에 기반한 검증이었다. 장유조의 별도의 강이라는 주장 역시 “지리적 형세로 따져보면, 장강은 분명코 남강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sup>32)</sup>는 사실에서 크게 힘입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여륜은 우선 장유조가 별도의 남강으로 내세운 절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錢唐에 浙江이 있으며, 전당 서쪽 120리의 좁은 곳은 절강이 아닙니다. 훗날 漸水를 절강으로 쓰고 또 간혹 둘 다 받아들여지다 절강으로 통칭되었습니다. 요컨대 강의 하류는 절강이 아닙니다. 남강이 이미 사라지자 이에 장강이 절강과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점수는 비로소 절강의 명칭을 독점하며 별도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천의 경로가 변한 것이니,

31)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禹貢導山導水, 曰至於某, 曰會於某, 曰過某, 曰爲某, 皆實指其地, 無虛言之者. 南江爲江所分, 則實實言之曰東爲南江, 宜也. 顧乃迂其辭曰東迤, 爲此孤懸隱射之語, 以疑後世. 此何爲者邪?”(『張裕釗詩文集』, 249쪽)

32) 張裕釗 著, 「禹貢三江考」: “以形勢求之, 江固不可通於南江矣. ……”(『張裕釗詩文集』, 208쪽)

어찌 우임금의 유적이라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sup>33)</sup>

오여륜은 별도의 강이라는 절강이 실은 애초 장강과 연계되어 있었으나 하류의 변천 과정을 통해 지금처럼 끊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장유조의 절강이 별도의 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물길로 옛 물길을 추론한”<sup>34)</sup> 주장이라고 결론짓는다.

절강이 별도의 강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는 물길일 따름입니다. 옛 절강은 분명 장강이 이론 것으로 별도의 강이 아니었습니다.<sup>35)</sup>

장유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의 이론을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지리적 형세를 고려할 때, ‘분강수’의 남강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

천하의 지세는, 대체로 산맥이 지나간 곳은 그 물이 모두 좌우로 나뉘어 흐르고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쪽의 徽, 寧, 池 등 여러 군은 침침산중으로 험준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수백 리에 펼쳐져있어 결코 평평히 비스듬히 흘러 중단되는 곳이 없으니, 비록 신묘한 우임금이라 하더라도 준설의 공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좌우의 모든 물은 각자 나뉘어 흐릅니다. ……큰 강과 커다란 물줄기가 그 사이를 흘러간다는 것은 만에 하나도 통할 수 없는 말입니다.<sup>36)</sup>

33) 吳汝綸, 「答張廉卿書」: “蓋錢唐乃有浙江, 錢唐西百廿里之狹中即非浙江矣. 後以漸水歸浙, 亦或互受, 通稱而浙. 要爲江尾, 非漸瀆. 南江既煙, 于是江不通浙, 而漸水始專浙江之名而自爲一江, 此乃遷流所變, 豈得執爲禹迹哉!”(『吳汝綸全集』卷一, 61쪽)  
 34) 吳汝綸, 「答張廉卿書」: “執今水以求故瀆也.”(『吳汝綸全集』卷一, 62쪽)  
 35) 吳汝綸, 「答張廉卿書」: “浙江自爲一江, 今所見之水道然耳. 古浙江固江所自爲, 非別有一水.”(『吳汝綸全集』卷一, 60쪽)  
 36)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天下地勢, 凡山脈經過之處, 其水皆左右分流, 判不相入. 雖行至平地中斷, 其中亦有微有岡阜隆起, 以爲之障. 然故可以人力疏鑿, 如班志之中江, 經由銀林, 鄧步之間, 說者以爲禹蹟, 此自可信者. 若其南徽寧池諸郡, 萬山復沓, 峻極於天, 旁魄綿亘數百里, 絕無平迤中斷之所, 雖神禹無所施其開鑿之功, 其左右諸水, 並各自分注. ……大江洪流, 經行於其間, 此萬無一可通之說也.”(『張裕釗詩文集』, 248쪽)

이에 대해서 오여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선생의 여러 논의를 살펴보면, 오직 지세와 산맥을 고찰한 것이 가장 근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분명 첩첩산중이 펼쳐져 결코 평평히 비스듬히 흘러 중단되는 곳이 없으니 준설을 할 곳이 없다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큰 강이 그 사이를 흘러 지날 수 없어야 옳을 것입니다. …… 선생의 주장은 비록 분명하나, 적용이 실질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도원의 남강이 거친 곳은 대체로 池, 寧, 太, 廣의 지역으로, 寧, 太, 廣의 물은 지금껏 흐르고 있고, 池州만 寧國으로 통하는 물이 없습니다. 요컨대 높은 산과 언덕이 수백 리에 펼쳐지지 않아도 중단된 곳이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오히려 徽, 寧, 池의 만산이 울창한 곳으로 이해하였는데, 예로부터 남강이라 일컫은 것이 어찌 일찍이 남으로 徽州와 관련된 적이 있던가요?<sup>37)</sup>

논쟁이 현재의 지리적 형세, 고금의 지리 변천에 관한 정보 등등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우공」 편은 우임금이 치수를 한 공적을 기록한 글로서, 하천의 경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지리 정보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글이다. 「우공」은 그 자체로 초기 지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sup>39)</sup> 반고의 『한서』 「지리지」, 역도원의 「수경주」 등 지리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공」 편의 내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지리에

37) 吳汝綸, 「再復張廉卿論三江書」: “尋執事諸說, 惟以考論地勢山脈者爲最近理. 要必真如所云萬山覆沓綿亘, 絕無平迤中斷之所, 開鑿無所施, 而謂大江不能經行于其間然後可也. 使不徑萬山之中, 不行覆沓綿亘之所, 尙有中斷之處, 無事開鑿之勞, 則執事立說雖辨, 其如施之非其實何? 凡鄙注南江所經, 大抵今池, 寧, 太, 廣之境, 而寧, 太, 廣之水至今通流, 獨池州無水以通寧國, 要亦非高山大阜盤互數百里不中斷之地也. 執事乃以徽, 寧, 池之萬山叢簇者當之, 自昔言南江者, 何嘗南涉徽州哉!”(『吳汝綸全集』 卷一, 67쪽)

38) 물론 역도원이 이미 그 옛날에 지적한 것처럼, 하류에는 많은 물이 모이는 데다 범람도 잦고 서로 섞이기도 하여 그 실질을 밝히기란 어려운 것이기에(楊向奎, 『讀程瑤田的『禹貢三江考』, 『中國歷史地理論叢』 No.4, 74쪽 참고) 그들의 지리적 검증 역시 많은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나, 참고로 이러한 한계를 오여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吳汝綸 著, 宋開玉 整理, 『桐城吳先生日記』 卷上, 279쪽)

39) 당사오평 지음, 김윤자 옮김, 『혼돈에서 질서로』, 292쪽; 王康, 「淺論『禹貢』及其學術價值—兼談『禹貢』的研究沿革」, 歷史回廊, 222쪽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와 학문적 식견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강역의 남부를 관통하며 흐르는 장강의 유역과 일대의 지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급의 지형의 변천 등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지리 측면에서의 논쟁이 지속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경설에 입각한 철학적 논쟁 못지않게 지리적 논증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4. 논쟁이 놓인 자리

사실 이 논쟁은 교육의 측면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논쟁 자체가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앞서 장유조의 주된 취지가 반고의 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사실 그가 덮어놓고 반고의 견해를 비판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공」의 해석에 대해서 “삼강을 논한 것으로는 반고의 「지리지」가 최초, 가장 근접”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기성 이론에 대한 학술적 태도와 관련한 것이다.

근세의 논자들은 대체로 반고를 덮어놓고 따르며 틀림없다고 여기는데, 이는 한인들이 믿는 것이 지나친 것입니다. 한인의 논의는 진실로 옛 것에 가까우며 실질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살펴서 실질에 부합하면, 이는 진실로 고인의 이론이니,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실질을 살펴보으나 부합하지 않고 심한 경우 그 실질과 배치된다면, 비록 옛 논의라 하더라도 나는 감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sup>40)</sup>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던 장유조는 당시 蓮池書院의 산장을 맡고 있었고, 그

40) 張裕釗, 「禹貢三江考」: “近世之說者, 率墨守班氏, 以爲不易, 則皆信漢人而過者耳. 夫漢人之說, 誠近古而得實矣. 雖然, 必以其實考之, 考之而得其實, 是誠古人之說也, 吾從之宜也. 考其實而不得, 甚者與實相背戾, 雖古之說, 吾未之敢從矣.”(『張裕釗詩文集』, 207쪽)

연장선상에서 서생들 역시 동일한 병폐를 갖지 않기를 바랐다. 아래 서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문의 내용은 그의 우려를 잘 축약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체로 고급의 물길은 변천이 일정치 않았습니니다. 산악은 비록 위치가 바뀌지는 않지만 고급의 명칭은 때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의 산천을 고집하며 옛 지리를 헤아리고, 후대 유가의 설을 묵수하며 虞·夏의 책을 해석하면서, 그 편한 바를 거들떠보지 않고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을 당연시합니다.<sup>41)</sup>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금의 산천을 고집하며 옛 지리를 헤아리고, 후대 유가의 설을 묵수하며 有虞氏 시대와 夏代의 책을 해석하면서, 그 편한 바를 거들떠보지 않고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삼강 논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권위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이 확보한 지식에 입각하여 과감하게 자기의 견해를 가지라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장유조는 그 자신 “정말로 반고의 논의가 경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훗날 비로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을 따름”<sup>42)</sup>이라는 문제인식의 과정에 대해 소회를 밝힌 바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영글어가는 과정에서 지리 지식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애초 장유조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禹貢三江考」의 서두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삼강을 언급한 것으로는 반고의 「지리지」가 가장 훌륭하고, 또한 가장 근접합니다. 하지만 결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역시 「우공」의 언급을 논자들이 말한 지리와 함께 살펴는 것뿐입니다. 「우공」에 비취, 그들이 말한 지역을 검증하여 부합하면 맞는 것이고, 「우공」에 비취 그들이 말한 지역을 검증하여 부합하지 않으면

41) 張裕釗, 「策蓮池書院諸生」: “夫古今水道, 遷徙無常. 山嶽雖終占不遷, 而今昔主名, 因時互異. 執今之山川以考古之地理, 墨守後儒之說以釋虞夏之書, 而不顧其安, 宜其舛抵而不合矣.”(『張裕釗詩文集』, 237쪽)

42) 張裕釗, 「答吳擘父論三江書」: “正以班氏之不合於經, 而後乃悟其非耳.”(『張裕釗詩文集』, 248쪽)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sup>43)</sup>

자신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다른 논거에 비해 지리 지식의 고찰, 그리고 그에 따른 검증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물며 지형으로 살펴보면, 왕왕 맞지 않는 것이 있음에랴!”<sup>44)</sup>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과감히 새로운 이론의 제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셈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도 지리 지식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고, 산천의 변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사실이다.

후대 지리를 공부하는 이들 중 반고를 추송하는 자들이 많지만, 왕왕 뒤섞이고 혼란스러워 반고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살피는 이는 반드시 우선 지리에 밝아야합니다. 반고의 「지리지」는 위로 성현의 전적을 헤아려 아래로는 역대 역사서, 지방지, 군국의 지리의 선하를 열었으니, 그야말로 지리의 관건으로, 학자들이 마땅히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sup>45)</sup>

이러한 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몸소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실 이 글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저 삼강 논쟁 자체가 장유조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서생들을 대상으로 지리에 대한 문제를 묻고, 그는 그 답안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일종의 '모범 답안'처럼 자신이 논문 한 편을 완성하였다.

전달에 「우공」 삼강으로 서생들을 평가하였는데, 자못 마음에 차지 않

43) 張裕釗, 「禹貢三江考」: 說三江, 班氏『志』爲最善, 亦最爲近之, 然要不能以無失也. ……然則何以考之? 還以『禹貢』之言, 與說者所稱之地考之而已. 按之『禹貢』, 驗之其所稱之地而合, 則得之矣; 按之『禹貢』, 驗之其所稱之地而不合, 則其說失之矣. (『張裕釗詩文集』, 206-207쪽)

44) 張裕釗, 「禹貢三江考」: “況以地求之, 而往往不合者邪?” (『張裕釗詩文集』, 209쪽)

45) 張裕釗, 「策蓮池書院諸生」: “後世治輿地, 揚榷班氏者衆矣, 然往往乖錯舛亂, 與班氏不合. 能言其所以然之故歟? 考史者必先明地理. 班氏『志』上稽聖籍, 下開歷代諸史志郡國輿地者之先, 固地理之鈐鍵鈴, 而學者之所宜盡心也.” (『張裕釗詩文集』, 237쪽)

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한 편을 지어, 이에 부치오니 검토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sup>46)</sup>

바로 이 답안을 중심으로 오여륜과 지난한 논쟁이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장유조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이었던 셈이다. 누가 옳냐 그르냐를 떠나 교육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검증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논쟁 이후로도 서로 지속적으로 절차탁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 등은 동성과 특유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리라는 것이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서 호출되었다기보다는, 지리가 가진 종합적 성격, 그러니까 위의 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생들에게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식은 시대적 의의가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번은 기존에 姚鼐가 제시한 ‘三者并重說’에 경세를 포함한 네 가지를 주요 학문 분과로 강조하였다. 장유조, 오여륜의 삼강 논쟁은 증문 사제자의 일원으로서 위의 주요 학문 분과에 대한 장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구나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삼강 논쟁에서 보이는 탐구의 모습과 교육의 장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교육 방식 등은 그들이 종합적 학문의 완성에 주안점을 둔 학술을 지향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오여륜은 폭넓게 고증 관련 연구를 행하였고, 특히 「우공」에 대해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sup>47)</sup> 장유조는 비록 삼강 논쟁의 시작에 즈음하여 “저의 고증, 경설은 우연히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애써 사리를 분별해 본 것에 불과하지, 평생 정말로 이것에 전념해본 적이 없습니다.”<sup>48)</sup>라고 말하였지만, 그 역시 고증에 정통하였다.<sup>49)</sup> 나아가 지리 연구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경세의 측면을 지리 연구의 중요한 배경으로

46) 張裕釗, 張裕釗書札 4.10일: “前月以「禹貢」三江考課諸生, 頗乏稱意者. 乃遂自作一篇, 今寄呈, 希即削正擲還爲盼.”(『張裕釗詩文集』, 481쪽)

47) 吳汝綸 著, 宋開玉 整理, 『桐城吳先生日記』卷上, 考證 第五, 247-297쪽 참고.

48) 張裕釗, 張裕釗書札 4.8일: “裕釗之考證經說, 不過偶遇一孔之見, 強作解事, 生平實未嘗搏心搢志於此.”(『張裕釗詩文集』, 454쪽)

49) 『張裕釗詩文集』, 7쪽 참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유조의 다음 말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역사학에서 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산천과 요새, 하천과 수리, 평원과 습지, 식생, 강역, 원근 등은 특히 經世家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입니다.<sup>50)</sup>

오여륜 역시 역사를 살필 때의 고찰에 용이하도록 『歷代都邑表』를 작성한 바 있고,<sup>51)</sup> 둘 모두 시대적 수요와 현실적 필요성으로부터 지리 정보, 지도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이러한 학술적 지향이 삼강 논쟁과 논거의 방식 등을 통해 총망라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5. 논쟁 그 이후

그렇다면 삼강 논쟁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삼강 논쟁만으로 채워진 두 차례의 서신을 서로 주고받은 뒤에도, 둘 사이의 논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둘은 각자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장유조는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결코 패주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저도 기필코 강적에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sup>52)</sup>라고 선전포고를 하였고, 오여륜 역시 자신의 견해에 대해 강한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전 답신으로 삼강을 재론한 것은 문리가 비루하여 그 취지를 밝히기에 부족하나, 요컨대 그 논의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선생의 힘 있

50) 張裕釗, 「策蓮池書院諸生」: “夫史學莫要於地理, 而山川阨塞, 河渠水利, 原隰土宜, 疆域遠近, 尤經世者之所必知.”(『張裕釗詩文集』, 240쪽)

51) 吳汝綸 著, 宋開玉 整理, 『桐城吳先生日記』卷上, 248쪽

52) 張裕釗, 張裕釗書札 4.8일: “想閣下決無降北之理. 卽不肖亦必不爲強敵屈也.”(『張裕釗詩文集』, 454쪽)

는 글이라 하더라도 분명 애써 다투지는 못할 것입니다.<sup>53)</sup>

논쟁에 임하는 자세는 둘 다 이렇듯 진지하였다. 진지하게 진리를 위해 서로가 다투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

그러나 한없이 이어질 수는 없는 노릇인 바, 서로 주고받은 글과 서신을 종합해 볼 때, 논쟁은 장유조가 ‘수건을 던지는’ 것으로 일단락된 듯 보인다.

‘삼강’ 건은 제가 감히 고의로 옛 사람과 다른 주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예컨대 여러 논의들은 내심 실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흥중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경학박사, 독서인들의 병폐를 범하고 싶지 않아서 잠시 그만둘 따름입니다.<sup>54)</sup>

물론 이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경전의 취지에 대해 득실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잠시 두었다가 나중에 만나 이야기”<sup>55)</sup> 하자는 것이다. 학리 자체에 얽매어 의미 없는 싸움에 목을 매지는 말자는 취지였다.

지금까지 후기동성과 내부에서 이루어진 삼강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가 아는 한, 이 논쟁은 지금껏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쩌면 문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를 렌즈로 하여 바라보는 문학사적 서술이 그러한 필터에 걸리지 않는, 일종의 ‘그들답지 않은’ 글이나 학술 활동을 도외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전환기는 전환기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들만이 선취될 뿐, 그 외의 것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전환기적 성격 또한 일조를 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은 우선 그동안 묻혀있던 그들의 논의를 세상에 알리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3) 吳汝綸, 「與張廉卿」(7.23일): “前復書再論三江文理陋劣, 不足發其意, 要其說不可易, 雖以執事雄文, 固不能強爭也.”(『吳汝綸全集』卷一3권, 47-48쪽)

54) 張裕釗, 張裕釗書札 8.29: “‘三江’一案, 弟非敢故與古人立異, 但如諸說, 私心實所未安, 其胸中所欲言者尙多. 今既不欲涉經生頭巾習氣, 則且置之而已.”(『張裕釗詩文集』, 459쪽)

55) 張裕釗, 張裕釗書札 4.22: “此等於經義不甚關得失, 故欲且置, 俟它日面論.”(『張裕釗詩文集』, 459쪽)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장유조의 새로운 해석이 첫째 관문인 오여륜부터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 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장유조의 창조적인 견해가 탄탄하고 짜임새를 갖췄다고 한다면 고래의 학술적 논의들을 일신하는 그야말로 획기적 의의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그의 견해가 가진 도발성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謝壽昌 등이 정리한 고래의 삼강론의 분포를 참조해본다. 그에 따르면, 고래의 삼강론은 대략 8가지로 정리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로는 한수, 장강, 팽려를 삼강으로 보는 관점, 둘째로는 『상서』의 '既入三江'에 초점을 맞추어 彭蠡로부터 세 갈래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서 삼강을 찾는 관점, 셋째로는 『水經注』의 沔水和 長江이 합류하여 다시 동으로 彭蠡澤을 지나 石城縣에 이르러 둘로 나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그 이후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북강, 중강, 남강으로 보는 관점, 넷째로 酈道元이 소개한 郭璞의 논의, 곧 岷江, 松江, 浙江의 셋으로 보는 관점, 다섯째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북강, 중강, 남강을 찾는 관점, 여섯째로 장강 전체를 대략 세 마디로 나누어 이해하는 관점, 일곱째로 장강의 상류 쪽에서 삼강을 이해한 관점, 마지막으로 吳淞江, 婁江, 東江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sup>56)</sup>

이에 비춰 장유조의 관점을 가늠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는 네 번째 관점을 근간으로 하면서, 남강을 장강과 별도의 강이라고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갈래에도 전적으로 속하지 않는 미증유의 견해인 셈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의 삼강론은 크게 보면, 장강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세 강을 지정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논의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사수창 등이 분류한 여러 이론들 역시 이런 기준에서 재분류한다면, 첫째, 넷째, 여섯째는 장강 전체에서 '세 굽이'(三股)를 지정하는 방식이고, 일곱째는 상류에서 지정한 방식, 그리고 나머지는 장강 하류 쪽에서 삼강을 지정한 것이다. 장유조는 넷째를 취하였기에, 장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하류 쪽에서 절강이 별도의 강이라고 지정함으로써 이론적 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오여륜과 장유조는 논쟁의 과정 속에서 기존 제가들의 논의를 광범위하게 인용

56) 謝壽昌 等 編輯, 『中國古今地名大辭典』, 27-28쪽 참고.

하며 논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다뤄지는 논의들은 위의 분류들을 기본적으로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일 수밖에 없다. 제가들이 제기했던 여러 이론들을 통해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견해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대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전통적 이론에 무게를 실었던 오여륜의 검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기존 제가의 논의가 재확인된 논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로 뜨거운 쟁점인 삼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논쟁은 분명 당시 학술계의 주류적 아젠다와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학술적 맥락에서 분명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삼강이라는 주제는 그야말로 통섭의 학문 주제라 할 것이다. 철학적 논의에 대한 해박한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통시적, 공시적 지리 지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명의 변천, 하천의 이동 등 지리학적 개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깊은 논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유조는 경제의 관점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오여륜 역시도 지리학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공」의 물길을 고찰하여 「導山表」, 「導水表」도 작성하고 「尙書地理表」를 완성하면서 「우공」은 따로 표로 정리하기도 하였다.<sup>57)</sup> 제가의 설이 무수히 포진한 상태에서 감히 새로운 견해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 역시 경설의 균열을 무심코 넘기지 못하는 진지한 학문의 태도,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지리 정보 등으로 미루어 옛 것을 다시금 고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학문 자세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흘렀고, 새롭게 얻은 사실들로 미루어 새로운 해석들을 감히 내놓는 그 지점에서 이 논쟁은 출발한 것이다. 바로 역대 제가들의 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대한 다시 읽기, 그리고 지리 지식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삼강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57) 吳汝綸 著, 宋開玉 整理, 『桐城吳先生日記』卷上, 249쪽.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들 논쟁이 가진 또 다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제의 성격상, 또한 그들의 논쟁에서 보여준 폭넓은 논의로도 확인되듯, 그야말로 종합적인 학문 주제를 그들이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교육의 영역에서 후학들의 양성으로 연계시켜냈다는 점에서, 후기동성과의 학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비단 문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합적인 학문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근대적 지식의 일환으로서 지리학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선 점은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들의 선각이 향후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지식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주요한 밑거름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편목의 한계로 이 글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실 이 삼강 논쟁은 보다 큰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다. 장유조 자신이 “漢代 이래로, 경전의 해설이 어지러이 쏟아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는 「우공」의三江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sup>58)</sup> 삼강이라는 주제는 역대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던 주제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기동성과 이전에 歸有光, 요 내, 方東樹 등 동성과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주제였다는 점 등에서 보다 깊은 학술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사의 총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청대 학술의 층위에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이기동 옮김, 『서경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李容遠 解譯, 『漢書地理志·溝洫志』, 서울: 자유문고, 2007.  
 탕샤오핑 지음, 김윤자 옮김, 『혼돈에서 질서로』, 과주: 글항아리, 2015.  
 張裕釗 著, 王達敏 校點, 『張裕釗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58) 張裕釗, 「禹貢三江考」: “自漢以來, 說經之紛出而不可紀者, 其莫甚於『禹貢』之三江乎.”(『張裕釗詩文集』, 206-207쪽)

- 吳汝綸 著, 施培毅·徐壽凱 校點, 『吳汝綸全集』, 合肥: 黃山書社, 2002.
- 吳汝綸 著, 宋開玉 整理, 『桐城吳先生日記』上, 下,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9.
- 楊向奎, 「讀程瑤田的『禹貢三江考』」, 『中國歷史地理論叢』 No.4, 1989.
- 容天偉, 汪前進, 「民國以來『禹貢』研究綜述」, 『廣西民族大學學報(自然科學版)』第16卷第1期, 2010.2.
- 張濤, 「邵晉涵與『南江筭記』」, 『浙江學刊』, 1995年 第3期(總第92期).
- 嶽紅琴, 「『禹貢』五服制與夏代政治體制」, 歷史學研究, 『晉陽學刊』, 2006年 第5期.
- 王康, 「淺論『禹貢』及其學術價值 — 兼談『禹貢』的研究沿革」, 歷史回廊, 『安徽文學』, 2008年 第6期.
- 喬治忠, 崔岩, 「清代歷史地理學的一次科學性跨越 — 乾隆帝『題毛晃『禹貢指南』六韻』的學術意義」, 『史學月刊』, 2006年 第9期.
- 孔祥軍, 「試論清代學者『禹貢』研究之總成績」, 『清史研究』, 2012.2 第1期.

〈Abstract〉

The Controversy of the Post-Tongcheng School on the “three rivers”

Baek, Kwang-Joon

This study explores an argument between Wu, Rulun(1840~1903) and Zhang, Yuzhao(1823~1894). It is mainly about the “Three Rivers” issue in “Shang Shu · Yu Gong”, which was carried out intermittently from 1887 to 1888.

This argument began with an article by Zhang Yuzhao, which was the “Contemplation on “three rivers” in Yu Gong”. In this article, he mainly pointed out that Ban, Gu was inevitably wrong in “Hanshu Dilizhi”, and then advocated that there is another Nanjiang River other than the Beijiang River and the Zhongjiang River associated with the Yangtze River. This is simply an unprecedented insight, because the Sanjiang theory has always referred to three parts of the Yangtze River or three Rivers diverted from the Yangtze River.

As far as the theoretical structure is concerned, Zhang, Yuzhao is mainly based on

Guo, Pu's Sanjiang theory: Lijiang, Songjiang, and Zhejiang, which led to the new proposition that Nanjiang is a river. Wu, Rulun verified it in all aspects, and Zhang, Yuzhao refuted it. In the debate, they involve a wide range of academics, sometimes classics, sometimes texts, lexicons, geography, and so on. This shows that they are also well-versed in many academic fields.

At the same time, it is commendable that they strive to put the above academic methods and attitudes into education. The "Contemplation on "three rivers" in Yu Gong" mentioned at the beginning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By examining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debate,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o wins or loses, it is estimated that Zhang, Yuzhao's claim cannot be successfully recognized by Wu, Rulun. However, regardless of the outcome, this controversy makes sense, that is, they absorb new knowledg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boldly challenge academic stereotypes, which are valuable in themselves, especially their profound knowledge of geography. In fact, this is the main background that touches the debate.

Key words: Three rivers, Yu Gong, academic controversy, the post-Tongcheng school, Ban gu, Hanshu Dilizhi, Wu, Rulun, Zhang, Yuzhao

이 논문은 2019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